

광주시 내년 살림 6조2817억원 '역대 최대'

올해 5조7124억원에 비해 10% 5693억원 증가

광주형 뉴딜 등 일자리 예산·도시철도·AI 집중

광주시가 '광주형 뉴딜' 등 일자리 창출과 도시철도 2호선,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을 담보할 주요 사업과 출산육아수당 등 특색사업에 6조원대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6조원대 시대가 개막했다.

광주시는 10일 202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5693억원 증액된 6조2817억원을 편성해 광주시에 제출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조9391억원과 특별회계 1조3426억 원으로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383억 원(6.7%) 증액된 2조1958억 원, 국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2456억 원(8.4%) 증액된 3조1812억 원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보건이 3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경제(26.1%), 교통·물류(18.1%)가 대폭 확대됐으며 일반공공행정(8.1%)은 소폭 증가했다.

세출 예산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민선7기에 종료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SOC사업 중 계속 사업은 집행시기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했다. 투자사업은 보상비→설계비→공사비 순으로 단계별 편성했다.

특색사업도 반영됐다. 우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출생육아수당 48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내년부터 광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아의 경우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육아수당을 24개월동안 지급받게 됐다.

이외에도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 구축, 청년 부부의 난임 건강검진비 지원 등에 2280억 원을 따로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소진된 재해·재난대비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711억 원 규모의 재해·재난 재원을 추가 확보했고, 긴급 복지지원 확대 144억 원, 최종중 발달장애인 지원 28억 원,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 2억 원도 지원한다.

광주형 AI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AI 중심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부 예산 718억 원 등과 함께 893

억원이 투입된다.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304억 원(24.9%) 증액된 1조1546억 원 반영됐다. 일반회계 비중 23.4%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를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시키고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11대 대표산업 육성에 1238억 원이 책정됐고, 광주형 3대 뉴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 656억 원도 반영됐다.

지난해 9월 착공식을 가진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내년엔 37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2호선은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단계가 먼저 착공했고 2, 3단계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사에 들어가 각각 2024년, 2025년 개통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동구 지산1동 "소화기로 화재 예방하세요"

광주 동구 지산1동은 동절기를 맞아 관내 안전취약계층에 휴대용 소화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해 주민중심 맞춤형 서비스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 이웃들의 화재 예방과 화재발생 시 빠른 진화로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용 소화기를 지원하게 됐다.

김미라 지산1동장은 "쌀쌀한 날씨 속에 어느 계층보다 화재위험이 높은 돌봄 이웃에 대한 소화기 지원으로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세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구 "폐건전지 새 것으로 교환해드립니다"

광주 서구가 오는 20일까지 생활 속 폐건전지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건전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폐건전지는 수은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소각매립되면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배출이 필요하다.

이에, 서구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폐건전지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홍보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폐건전지 수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크기와 관계없이 폐건전지 10개를 서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새 건전지 2개를 지급하는 교환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남구, 13일 남구청 개청 25주년 등 축하 행사 열린다

광주 남구청 개청 25주년을 기념하고, 민선 7기 남구 발전에 기여한 주민들의 노고를 축하하기 위한 남구민의 날 행사가 열린다.

남구는 10일 "1995년 개청 이후 남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온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주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기 위해 13일 오후 4시부터 남구 문화회관에서 남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열리는 남구민의 날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행사 참석 인원 및 대면 접촉 프로그램을 최소화했다.

북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2020 마을미래학교' 운영

광주 북구는 오는 14일까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주민,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20 마을미래학교' 강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마을미래학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마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일날 개강식과 함께 송기희 호남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구해줘, 마을 브랜드!'라는 주제로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 문화브랜드 만들기 등에 강연했다.

광산구, '위험을, 기회로' 공연 유튜브 공개

광주 광산구(사)오월음악 주관으로 지역 예술인과 함께 진행한 한마음 축제 '위험을, 기회로' 공연 성료를 알리며, 더 많은 시민과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9일 공연 실황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10/30일 첨단 삼암공원, 11/6일 광산문화회관에서 각각 개최된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활동이 위축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시민에게 위로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며, 공연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위험을 기회로'를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임형택기자

광주도공 임대주택 60% 스프링클러 없어

광주도시공사 임대주택의 60%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광주도시공사

사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자료에 따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임대주택은 총 8396세대 중 40.21%인 3376세대만 설치돼 있다.

지난 2005년 이전에 허가된 임대주택 스프링클러 설치가 전무하다.

스프링클러는 지난 1992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 아파트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2005년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11층 이상 아파트 건물 전체에 설치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또 2018년부터는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도 스프링클러를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장재성 의원은 "스프링클러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임대아파트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김기태 전남도의원 전남권 의대 유치...도민 공감대 형성 중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 불법행위' 문제 심각성 지적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최근 진행된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권 의대 유치와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기태 의원은 "의대유치를 둘러싸고 정치권, 학계, 교계, NGO 할 것 없이 목소리가 총망라돼서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 모르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다"며 "전남도가 의대유치에 있어 중립적인 자세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도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

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늘 생각을 같이 하겠다"며 "30년 숙원사업이고 의대유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한다.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남도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뒤 "코로나19 환자는 급증하는데 음압병상이 부족해 허둥대는 일이 있었다"며 "음압병상에 대한 충분한 정보공유와 함께 앞으로 알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고령 환자가 급증하는 데 충분히 케어할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기태 의원은 "전남도가 제출한 '의사면허 정지 및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자격 정지 14명, 2019년 자격 정지 4명인데, 2020년은 자격 정지 7명에 면허 취소가 3명이나 되고, 그 원인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나 리베이트 수수, 면허대행, 심지어 진료거부까지 있



어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전남도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3일 순천의료원과 동부지역본부로 끝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한정승인공고

사건번호: 광주가정법원 2020년단3722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노현진 (530720-1552110)
최후주소: 광주 남구 서문대로 795번길 20-3, (주월동)

위 망 노현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11월 11일

공고인: 노병학
주소: 광주 남구 서문대로 795번길 20-3, (주월동)
한정승인수리일: 2020년 11월 03일
공고기간: 2020.11.11 ~ 2021.1.11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를 넘어서 세안한 슬로건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가구당 월평균 18만원 혜택

보험료 납부 104,062원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소득구분	보험료부담액	급여비	비율
5분위 (고소득층)	240,833원	424,100원	1.76배
4분위	125,531원	220,000원	1.76배
3분위	79,147원	139,000원	1.76배
2분위	48,103원	85,000원	1.77배
1분위 (저소득층)	26,697원	47,000원	1.76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